



SPECIAL COLUMN

경제에서의 정의

한국 사회, 정의를 말하다

황의서

적극적 정의실현으로 상생의 길을 찾다

경제학의 대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정의를 소극적 정의와 적극적 정의로 구분했다. 소극적 정의란 이웃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올바른 행위이다. 한편 적극적 정의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올바른 행위이다. 전자는 이웃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올바른 행위인 한편, 후자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올바른 행위이다. 경제 이론의 핵심가치는 '이웃이 잘 살아야 자신도 잘 살게 된다.'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소극적 정의보다는 적극적 정의 실현이 보다 더 밝은 경제사회를 이루어 간다. 한때 어느 한 편이 득을 보면 다른 편은 피해를 봄으로써 이득과 손실의 합이 제로(0)가 된다는 '제로섬사회' 이론이 부각되었었다. 이에 따라 이웃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주장되기도 했지만 이는 단기적 판단이고, 장기적으로는 서로 상생하며 사는 게 진리이다. 가령 세계적 금융위기는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었다. 최근 어려워진 그리스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각 국가

경제가 서로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짐작하게 해 주는 부분이다. 부유한 국가나 사람에게는 적극적 정의를 실현하며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도덕적 책임이 있다.

한국경제의 정의실현

한국 경제 분야에서도 적극적 정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경쟁력 높은 대기업들이 수익성 약한 중소기업들을 돌보면서, 상생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은 제품가격상승과 수출에 힘입어 17.5%의 매출증가율을 보였다. 여기에서 대기업은 18.5%, 중소기업은 16.0%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대기업은 평균보다 높고, 중소기업은 평균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수익성에서도 수출기업은 7.82%, 내수기업은 5.9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경쟁력 차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한국경제가 살 길이다. 때문에 국가는 수출기업들을 환율정책과 같은 간접 방식으로 보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는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수명향상, 원가절감,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바탕으로 공동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서로 공유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이 증가되고 이윤도 확대된 상생의 좋은 모델이다.

로 인해 내수기업들은 원자재 값 상승 등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다.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약화는 장기적으로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진다. 이 집단들 간에 공정한 상생관계가 형성될 때야 경제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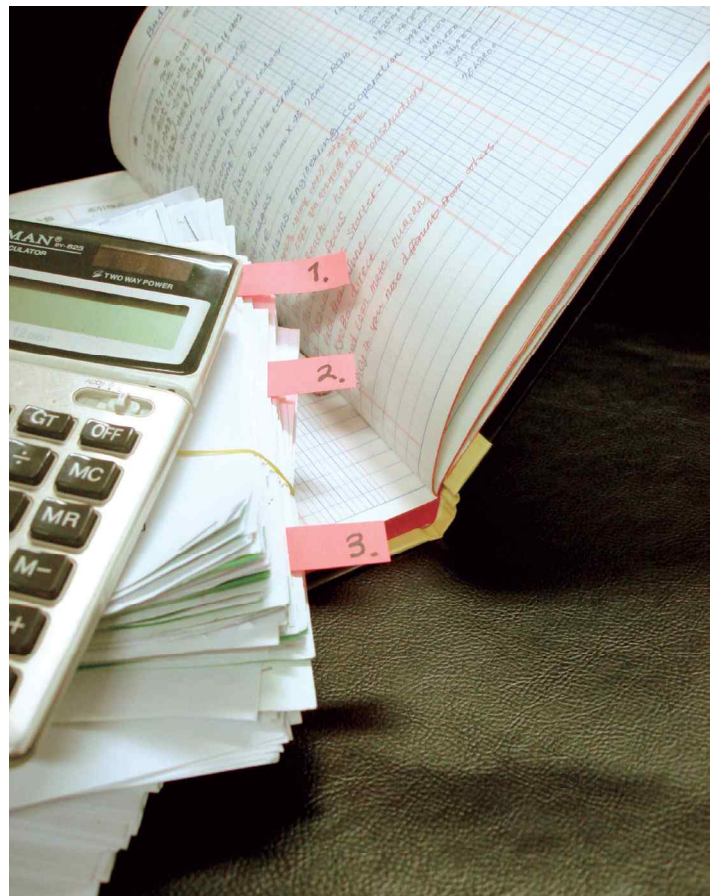
여기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2004년부터 포스코(POSCO)가 실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이다. 이는 포스코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수명향상, 원가절감,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바탕으로 공동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작년에 중소기업에 전달된 보상금은 169억 원,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76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이 방식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준다. 모두의 생산성이 증가되어 경쟁력도 향상되고, 이윤도 확대되는 것이다. 작년부터는 성과공유제 참여대상범위를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기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주요자재에 대한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관계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실업문제와 사회적 기업

다음으로는 실업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일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은 곧 예배가 된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봤고, 칼빈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실업통계는 많이 왜곡되어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실업률을 5%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이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식으로 실업여부를 조사할 경우, 사실상 실업률은 4배 이상 높아져서 21.2%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2010년 OECD 평균 6.0%보다는 3배,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평균 실업률 9.6%보다는 2배 높은 수치다.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 특히 고시나 입사시험 준비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62만 명의 청년층 역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취업된 상태라 해도 일하는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빈곤을 유발시키고, 빈부격차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교사





채용인원을 확대시키려고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이 근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업문제는 실업자 자신과 민간경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고, 정부는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예로, 사회적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면세 혜택을 주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진국들도 복지 측면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사회적 기업들을 장려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 스스로가 수익성을 확보해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들이 시장 경제원리에 따른 기업운영방식을 채택하고, 가치 창출과 혁신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과 영국 방식에 가까운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친환경 청소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마련되고, 농촌 교육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나눔의 재단들이 설립되는 등 말이다. 최근에는 소규모 자금을 모아 영상이나 구제 사업 등에 참여하려는 소셜 펀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십시일반(十匙一飯) 개념이 '소액 다수

의 후원'이라는 경제적 측면으로 녹아든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업들이 출몰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이런 활동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연줄보다 능력에 기초한 사회를

마지막으로 인간이 만든 장벽들이 무너져야 한다. 한국 사회는 연줄을 중요시하는 사회이다. 연줄은 인간이 만든 장벽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인맥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연줄은 파벌을 형성하고,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정의 실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학교교육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인간이 교육으로 사람을 망치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음악을 싫어하는 자녀에게 억지로 음악 교육을 시키는 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 현대사회 역시,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교육을 활용하기

많은 사람들이 돈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방패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스스로 만든 보호 장치 속에 둘러싸여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곧 패망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은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긴 하지만, 그러한 맹목적 열정이 인생에 도움 되지 않음을 나중어야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단지 옷 상표처럼 학벌의 상표만 붙이는 결과다. 사람이 만든 학연, 지연, 혈연 등은 자신을 감싸주는 안전한 보호막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을 가둬두는 우물이 될 뿐이다. 인위적으로 쌓은 벽에 갇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다보면, 결국 시대 흐름에 뒤처지게 되고 만다.

한국 사회의 이 연줄 문화는 세계화 시대에서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사업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같이 일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큰 게 사실이다. 연줄 없는 사람을 신뢰하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는 삶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외 시장 공략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맞는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면, 연줄이 아닌 '능력'에 기초하여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물론 기업들 역시 객관적 능력을 토대로 인사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물질에 의존하는 심리

가장 나쁜 심리적 의존 요소는 바로 돈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방패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재물을 쌓으려 욕심

내는 것은 멸망에 빠지는 길이라고 말한다(디모테전서 6:9~10 참고). 부자들은 물질로(돈으로) 매수한 권력으로 또 다른 방어막을 만들어 정의를 외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스스로 만든 보호 장치 속에 둘러싸여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곧 패망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 만물을 다스릴 특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가졌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끔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것이 곧 도덕적 감각이 된다. 도덕적 감각은 나에게 뿐 아니라,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능력이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된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제 분야에서도 예외가 없다. 경제사회가 정의롭게 움직이려면 경제인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가기를 바라고 계신다.



황인석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독교학문연구회의 기독 경제/경영 분과 위원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경제와 신앙』, 『경제발전과 경제윤리』, 『독일 통일이야기』 등이 있다.